

순천시청 김지정 값진 동메달...생애 첫 AG 입상

윈드서핑·사격 종목서 첫 금
황선홍호 조별리그 3전 전승
태극전사들 메달 사냥 순항



5년 만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금빛 낭보는 계속됐다. 전날(24일) 최대 6개의 금메달을 기대했던 한국 대표팀은 예상에 근접하는 5개를 따내고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로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해 메달 종합 순위 2위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대회 3일차에 접어들어 25일(오 후 7시 기준)에도 윈드서핑에서 금빛 물꼬가 터지자 한국은 사격, 유도 등 종목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다.

◇윈드서핑
조원우(해운대구청)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요트 남자 윈드서핑 RS:X에서 대한민국 수상 종목 가운데 첫 번째로 금메달 획득을 확정했다. 조원우는 25일 중국 저장성 닝보 상산 세일링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윈드서핑 RS:X 11·12차 레이스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다. 1회 레이스 불참 시 벌점 7점을 받는 규칙에 따라 조원우는 26일 13·14차 레이스가 남아있지만 앞선 12번의 레이스에서 가장 적은 벌점(13점)을 쌓아 하루 일찍 우승을 확정 지었다.

26일 열리는 2회 레이스에 모두 불참해도 한 번은 최종 성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산술적인 조원우의 벌점 최대치는 20점이다. 현재 2위인 태극 낫타풍 포넬파랏의 벌점 총합은 27점이고, 여기에 가장 성적이 낮았던 1차 레이스(5등·벌점 5점)를 빼더라도 조원우를 넘을 수 없다.

◇사격
한국 사격 대표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10m 러닝타깃 단체전에서 북한을 제치고 금빛 총성을 울렸다.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정유진(정주시청), 하광철(부산시청), 박용빈(충남체육회)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25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사격 남자 10m 러닝타깃 단체전에서 1,668점을 기록, 5개 참가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나온 한국 사격의 첫 금메달이다.

정유진이 565점으로 팀 내 최다 점수를 올렸고 박용빈(554점), 하광철(549점) 순이었다. 개인 성적에서 공동 3위에 오른 정유진은 느구엔 투안 안(베트남)과의 쏫오프에서 이겨 개인전 동메달까지 따냈다. 송종호(IBK기업은행)와 김서준(경기도청), 이권혁(국군체육부대)으로 구성된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대표팀은 1,734점을 기록, 은메달을 따냈다. 송종호는 580점으로 팀 내 최고 득점을 기록했고 김서준이 578점, 이권혁이 576점을 쏘았다.

◇남자축구
'골든보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25일 중국 항저우 사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6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 김지정(순천시청)이 키르기스스탄 아디나 코치르바예바를 상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10m 러닝타깃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유진(가운데), 하광철(왼쪽), 박용빈이 시상대에서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처음 가동한 황선홍호가 바레인을 격파하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4세 이하(U-24) 축구 대표팀은 지난 24일 중국 저장성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E조 마지막 3차전에서 후반전 이한범(미트윌란), 백승호(전북), 고영준(포항)의 연속골로 바레인에 3-0 승리를 거뒀다. 앞서 1차전에서 쿠웨이트에 9-0, 2차전에서 태국에 4-0으로 크게 이기며 일찌감치 조 1위 16강행을 확정 지은 황선홍호는 이로써 가쁜한 3연승으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한국은 이날 대만을 4-1로 꺾고 F조 2위로 올라서며 극적으로 16강행 티켓을 거머쥔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8시 30분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8강 진출을 다툰다. 2부 1패의 바레인은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유도
유도에서는 김지정(순천시청)과 박은송(동해시청)과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지정은 25일 중국 항저우 사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63kg급 동메달결정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아디나 코치르바예바를 한판 승으로 누르고 3위를 차지했다. 김지정은 16강에서 아퀼리나 차예브(레바논)를 연장(골든스코어) 접전 끝에 반칙 승으로 눌렀고, 8강에선 카자흐스탄의 예스미굴 쿠울로바를 안다리 되치기 절반으로 꺾었다. 순조롭게 경기를 이어가던 김지정은 준결승에서 만난 일본의 다카이치 미쿠에게

일격을 당했다. 안다리 후리기 절반-결누르기 절반을 연거푸 내주며 한판패 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아쉬움을 삼킨 김지정은 마지막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생애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은송도 같은날 열린 유도 여자부 57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알탄세세그바추크를 연장(골든스코어) 접전 끝에 반칙승으로 꺾고 시상대에 올랐다. 팽팽한 승부 속 박은송은 이를 악물고 계속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연장 3분 22초에 상대가 잡기를 피하는 반칙을 범하면서 박은송이 승리했다.

◇세팍타크로
한국 여자 세팍타크로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레구 단체전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25일 중국 저장성 진화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팍타크로 여자 레구 단체전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라오스를 3-0으로 꺾었다.

전날 중국을 3-0으로 물리친 한국은 2승으로 조 1위를 차지, 4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4강은 오는 28일 오후 10시 30분 29일 결승에 진출한다. 한국은 이 종목에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A조는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로 구성됐으며 태국이 2승으로 조 1위를 굳혔다. 26일 열리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경기 승자가 우리나라의 준결승 상대가 된다. 한국 세팍타크로는 2002년 부산 대회 남자 서클 종목 이후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 /조혜원 기자·연합뉴스



24일 중국 항저우 전자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최인정이 시상대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금메달 마침표 최인정, 국가대표 은퇴 선언

AG 펜싱 여자 에페 정상

“금메달이 (그동안) 고생했다는 의미의 선물처럼 느껴져요. 훌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4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에페 정상에 오른 뒤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최인정의 얼굴은 무척 편안해 보였다. 2전 3기 끝에 금메달을 따냈다는 성취감보다도 국가대표 생활을 아쉬움 없이 마무리했다는 안도감이 더 큰 듯했다. 그는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2회 연속 개인전 동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에 그쳤다. 최인정은 시상식이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만족보다는 제가 해내야 할 몫을 한 것 같아 기쁘다”면서 국가대표 은퇴 의사를 입에 올렸다. 그는 “올해를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하

려고 한다”고 못 박으며 “올림픽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후배들이 제가 못다 이룬 금메달을 따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인정은 2012 런던, 2020 도쿄 올림픽에선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개인전에선 입상하지 못했다. 그는 “2010년부터 13년 동안 3번의 아시안게임, 3번의 올림픽을 뛰었다. 비록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만족하는 경기도 많았고 보람찬 경기도 많았다”고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러면서 “딱히 은퇴 이유는 없다. 이쯤 되면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물러나는 게 맞겠다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인정은 이날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송세라(30·부산광역시청)를 연장 접전 끝에 9-8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최고의 모습 보일 것”...안세영, 항저우 입성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를 달리는 안세영(삼성생명)이 2022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중국 항저우에 25일 입성했다.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길에 올라 항저우에 도착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경기는 28일 시작한다. 10월 1일까지 남녀 단체전이 펼쳐지며, 10월 2-7일 개인전 5개 종목(남자 단식·여자 단식·남자 복식·여자 복식·혼합 복식)

이 이어진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노메달’ 수모를 겪었던 한국 배드민턴은 5년의 철치부심 끝에 이번 대회에서 명예 회복을 버리고 있다. 자카르타 대회에서 1회전 탈락의 쓴맛을 봤던 안세영은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통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면서 “이번엔 좋은 흐름을 갖고 항저우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최종명단 확정...이한비·권민지 제외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다. 25일 대한배구협회에 따르면 항저우 대회에 나설 최종명단은 아시안게임 엔트리 규정에 따라 12명으로 조정됐다. 이한비(페퍼저축은행)와 권민지(GS칼텍스·이상아우사이드 히터)는 명단에서 제외됐고 기존 선수들은 그대로 항저우로 이동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예정이다. 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세트에 김다인(현대건설), 김

지원(GS칼텍스), 리베로에 김연경(현대건설), 문정원(한국도로공사), 미들 블로커에 박은진(정관장), 정호영(정관장), 이다현(현대건설), 이주아(흥국생명), 아포짓 스파이커에 이선우(정관장)가 나선다.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휘(GS칼텍스), 박정아(페퍼저축은행), 표승주(IBK기업은행)가 세사르호의 부름을 받았다. 조별리그 1라운드 C조에 속한 여자배구 대표팀은 10월 1일 베트남, 2일 내팜과 경기를 치른다. /조혜원 기자



손흥민

‘아스널전 2골’ 손흥민 개인 통산 ‘150골 돌파’

아스널과 ‘북런던 데비’에서 멀티골을 터트린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9시즌 만에 개인 통산 ‘150골 고지’에 도달했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영국 아스널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 2023-2024 EPL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4·5호 골을 잇달아 터트리며 토트넘의 2

-2 무승부를 이끌었다. 이번 멀티골로 손흥민은 의미 있는 기록을 작성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9시즌 동안 공식전 379경기(정규리그 274경기 108골·FA컵 28경기 14골·리그컵 16경기 4골·유럽 클럽대항전 61경기 24골)에 나서서 150골을 채웠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대 통산 득점 순위에서 해리 케인(280골), 지미 그리브스(266골), 보비 스미스(208골), 마틴 치버스(174골), 클리프 존스(159골)에 이어 6

위를 달리고 있다. 토트넘 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캡틴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50골을 기록했다”라며 그동안의 골세리머니 장면을 모은 게시물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2021년 1월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EPL 17라운드에서 골맛을 보며 토트넘 공식전에서 100호골을 터트렸고, 그로부터 2년 8개월여 만에 ‘150골 고지’에 올라섰다. 한편, 손흥민은 아스널전에서 2골을 보태면서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99골을 기록, 200호골에도 1골 차로 다가섰다. /연합뉴스